

신앙고백-치유와 서밋의 응답

창세기 3:15, 마태복음 16:13-20

김철연 선교사님

소중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 집사람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한국에 가서 여러 교회 강단에 서게 되는데, 가장 편한 교회가 참사랑교회야.” 우리 집사람이,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늘도 지금까지의 예배를 봐도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고백 안에 치유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 서밋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다.

1. 신앙고백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은 신앙고백대로 된다는 메시지를 주셨다. 그때부터 고백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서, 틈나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세력이 꺾인다. 불신앙의 세력이 꺾인다. 우리가 알면서도 속는 연약함이 있다. 누가 속이는가. 음부의 세력이 있다. 남편도 아내도 동료도 아내도 우리는 자꾸 속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인격 성품 소양과 상관없이 음부의 세력, 불신앙이 꺾여 버린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이다.

(2) 그래서 이렇게 고백 기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주인이 안 바뀌면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구원받았는데도 힘든 부분이 많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과연 나는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아직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바뀌면 달라진다. 주님이 내가 겪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속히 주인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그리스도는 나와 내 가정, 가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과 여기저기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입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하자 해 놓고도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데, 어디까지 이 문제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중요한 key가 있다. 문제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은 했는데, 아직 나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다. 일곱 램프들에게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 있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그 차이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고백을 함으로 갈등할 것인가, 신앙고백대로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와 내 가정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문제가 있으나 문제로 안 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도 간증거리가 나온다.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의 증거가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는다.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였는가.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엄청난 부끄러운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성령충만한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될지’였다. 기도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대로 있었다. 이게 과연 무응답인가? 기도대로는 안 됐다.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난 응답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제 없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질병을 두셨구나.’ 깨달은 것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연약한 것은 감추고 잘난 것을 자랑하려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진짜 약이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연약함 속에 간절함이 있다. 나의 연약함을 실감할 때 간절해진다. 기도가 간절해진다. 차원이 다르다. 나의 연약함 속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는 자꾸 잘난 것만 드러내고 못난 것은 숨기려고 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한다. 구원받아놓고도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갈등을 하는 것이다.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셔야 속지 않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사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된다.

2. 신앙고백에서 오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

이 기도를 내가 하면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1)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고백을 했는데 왜 치유가 일어날까? 우리를 처음부터 힘들게 하고 인류를 아담 때부터 힘들게 했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을 했을 때 응답이 따라온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는 것이다. 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사단이 막살나는 것이다. 이게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감이 없는 것은 체험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은 사실이지 않은가.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영적 문제인데, 이게 치유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임했다. 어둠의 세력이 공존할 수 없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통치자로 오셨다. 전에는 가짜 왕이 왕 노릇했으나, 이제 빛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었으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간 것이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언약 붙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들었고, 듣고 있다. 성경에,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직접 들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해했겠는가? 오랫동안 이해를 못 했다. 언제 이해했는가? 이삭의 출생이다. 25년 뒤,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 사라가 임신했을 때 언약을 이해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임신이 안 된다. 그런데 임신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다. 언약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언약 언약 하면서도 될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언약은 한계가 없다. 언약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과학을 초월한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믿어 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믿음대로 될지’였다. 안 된다고 믿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약을 이해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다. 상식으로, 이론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장애가 아닌 것을 알았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게 언약이 이해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갈등이 되지 않나. 그 씨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없애라고 하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언약이 이해된 것이다. 정말 언약이 이해되는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유가 없어졌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언약적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 따로 현실 따로’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제는 갈등이 없어진다.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②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랬다.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 고백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열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인가? 열 정탐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보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한다. 포도를 덤불째로 증거로 가지고 왔다. 우리의 갈등에 중요한 해답의 key가 여기 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본 것을 사실이라고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고했다. 쟁과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그런 땅인가? 아니다. 차라리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그런 땅이다. 이스라엘은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밤에 내리는 이슬을 강수량으로 계산한다. 그 땅이 어떻게 쟁과 풀이 흐르는 땅인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기에 오지 않으면 농사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쟁과 풀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쟁과 풀이 어디에 있는가? 사업인가? 기업인가? 은행에 있는가? 그제 속는 것이다. 우리의 쟁과 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쓸 텐데 왜 안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충분히 주어도, 많이 주어도 배탈 나지 않을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 줘도 배탈 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고, 흔들리고, 예배에 소홀할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는가. 인색하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실 만큼 다 주셨는데, 제가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 중심을 보시잖아요. 제가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에 혹시 남은 부채가 있다면,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이, 메이슨 전쟁 시대에,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되었는데,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받았다.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③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다. 우리말에는 파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거절로 되어 있다. 악인의 꾀를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게 매력적인데 말이다. 그런데 2절에,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주자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와 말씀을 주자로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몇몇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언약기도문

을 매일 쓰게 한다. 그런데 쓰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불신앙과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경계 응답도 오더라.” 만날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한다. 또 다른 목사님은, 자신이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 치유센터에 다녀와서부터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놀라운 증거들이 자신과 성도들에게 나왔다고 한다. 그게 각인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은, 10년 동안 치유세미나를 와서 들었는데 10년 지나 보니 원래 상태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읽고 쓰는 운동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안 바뀌더니,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더니 교회가 바뀌더라는 것이다.

(2)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된다. 요셉이 상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형님들을 대할 때 보면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늘 임마누엘이 되니까.

(3) 그리고 전인치유를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정서, 삶의 치유가 오는 것이다. 다윗이 상처가 있겠나 없겠나. 상처가 많다. 국가 위기 때 국가를 살린 영웅이요 국민의 은인이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상처가 적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영감 잘 죽었네.”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울었다. 슬펐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고 한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통곡하며 울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치유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상처는 많다. 그러나 치유를 받았다. 전인치유를 받았다. 정서와 삶 전체가 치유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놀라운 치유를 일으킨다.

(4)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응답이다. 일곱 렘넌트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누렸는가? 응답이 오기 때문이다. 나라, 민족을 살렸다. 그러니까 서밋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높은 곳, 산 정상상을 서밋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서밋은 고도로 위치가 높은 것보다는,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일곱 렘넌트들은 국가,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기도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뀐다. 남여전도회, 구역의 분위기가 바뀐다. 계속 응답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3. 치유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러면 치유를 받고 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1) 첫째,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된다. 그게 속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 것이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민, 갈등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말은 당연히 다르다. 불신앙하면서 몸부림치는 것과, 믿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2) 치유받고 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랬다. 세 친구는 뭐라고 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절대주권 신앙이다. key는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좋은가 안 가면 좋은가. 안 가야 산다.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나?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상관없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살 길을 찾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는다. 불리한 선택을 안 한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마음이 편했다. 들어갔는데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 다리오왕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포고문을 내린 것이다. “메대와 바사의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놀라운 것이다. 다니엘이 머리를 굴려서 안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들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게 절대주권 신앙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불리하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선하신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래야 자유롭게 된다.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 평안할 환경과 입장이 아닌데 평안하게 된다.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수준인 줄 믿는다. 아멘 했으니 탄 소리 하면 안 된다. (웃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안 된다.

(3)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이런 변화가 온다.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니, 당연히 성령인도를 받게 된다.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책임자였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속지 않는다. 현실에 속는다는 것은

언약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선이다. good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도 과정에 속는다. 지금 와 있는 것은 과정이다. 이쁨과 갈등도 눈물도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감사로 바뀐다.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훈련하는 것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사람들은 속는다. 전도제자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수준이 아니다. 고통을 훈련으로 본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간이 밋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나는 육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나를 씹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 주신 훈련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밋지 않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선택되었구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교로 쓰시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제일 힘들지 않다. 물질적인 것이야 참으면 되지만 모든 것을 그러나 훈련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초월하게 된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온다. 초월하자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선한 이유로 받아들이면 초월하게 된다.

작년 8월 세계렘넌트대회 때 도전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때 결단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도전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만둔 사람은 신앙에 완전히 차이가 생긴다.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결단을 포기한 사람과 그래도 결단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다르다. 우리는 도전, 결단을 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다. 3오늘을 해 봤는데도 별로 되는 게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3오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각인해야 한다.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이 재미있어진다. 그 말씀이 내 의식과 인간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어떤 분이 참사랑교회 빛을 다 갚겠다면서 복권을 산다고 해 보자. 천억 원짜리 복권이다. 그런데 당첨되었다고 해 보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겠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천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천억 원으로 천국 입장권을 사야 되겠다.” 살 수 있겠나 안 되겠다. 답을 다 아니까 대답을 안 한다. (웃음) 못 사지 않나. 노벨상을 받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땀, 이런 것은 온 국민을 흥분시킨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으로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는가. 당연히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이겠는가. 10억인가. 10조원인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priceless라고 한다. price를 매길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도 매길 수 없다.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내가 어떻게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기적 중 기적이다. 틀림없이 지옥 백성인데 선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으로 비교하겠는가. 무슨 성공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과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값도 매길 수 없도록 가치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더 받을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아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 가치있는 인생을 가지 있게 살다가 가치있는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더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뭘 더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결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있는 결산서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겠습니다. 지난 날 불평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의 신분, 구원의 가치, 이 소중한 것을 이미 소유했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감격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 도전,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내 생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결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가장 값있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내 생애에 새로운 전환점이 오기를 원합니다. 전인치유를 받은 사람의 새로운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이대로도 감사하지만, 나의 결산할 그 날을 위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